

2013 매력철철 철학과 부회장 김은혜의 인사

김은혜

매력철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4년 철학과 학생회를 시작한지 벌써 일년정도의 시간이 흘렀다. 4학년이라는 학년에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생각할 때 많은 고민도 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과를 좋아하고 또 그 과 안에 좋은 사람들과 일년동안 여러가지 일들을 하며 그런 일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밖에 겪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회장을 한 번 해보자고 생각했었다. 그래서 시작된 부회장생활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희노애락이었던 것 같다. 처음 신입생들을 만나서 한명하명 알아가면서 재밌고 행복했던 기억, 비록 몇 경기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체육대회를 하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우리끼리 신나게 놀았던 기억, 인대컵때 축구를 우승했었는데 내가 부회장일 때 이런 기쁜 일 생기게 해줘서 고맙다고 뒷풀이할 때 평평 울었던 기억, 회장 오빠와 행사를 준비할 때 어쩔수없이 부딪히게 되서 그럴 때마다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도 서로 미안해서 금방금방 화해하고 장난쳤던 기억, 우리과는 일일호프를 하지 않았었는데 고생하더라도 추억 한 번 만들어보자며 열심히 추진해서 죽게 고생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진짜 생각 많이 나고 추억이 된 일일호프를 한 기억,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면서 애들한테 모진소리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는데 앞에서는 티를 못 내니까 미안해서 뒤에서 혼자 평평 울었던 기억 등등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거리들이다. 앞서 말했듯이 지난 일년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웠었는데 이랬던 일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.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준 2014년 매력철철이들 영원히 잊지 않을게 사랑해♥